

2010. 24호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평협소식

서울시 종로구 명동 2가 1번지 가톨릭회관 510호 TEL 02·777·2013 / 757·7851 FAX 02·778·7427

<http://www.clak.or.kr> E-mail: clak@catholic.or.kr

발행일 : 2010. 1. 4 발행인 : 한홍순

새해는 언제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내려 주시는 새로운 은총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한해 동안 잘 활용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도록 하는 것이 이 선물을 주신 분의 뜻일 진대 우리 모두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이 일을 해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삶의 현장에서 자신이 바로 교회인 우리 평신도는 바로 여기서 지금 하느님 뜻에 맞게 살아나가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처럼 반생명적인 죽음의 문화가 팽배해 있는 세상에서 생명의 문화를 창달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는 일”(요한 10, 10)에 투신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 평신도들이 자신의 사명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올 한 해도 이 땅의 평신도들이 이러한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실천하여 이웃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힘을 보태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나라 안팎으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하느님의 뜻에 맞게 극복하며 희망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느님의 뜻에 따라 실현해 나가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느님과 성모님과 여러분에게 청합니다. 아울러 올해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느님의 은총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 한홍순



싣는 순서

▣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3
▣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7
>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9
>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11
>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12
>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14
>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14
>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16
▣ 한국평협 회원 단체	
> 한국가톨릭 간호사협회	18
> 한국가톨릭 경제인협의회	18
> 한국가톨릭 군종후원회	19
> 한국가톨릭 나사업연합회	19
> 한국가톨릭 언론인협의회	19
> 한국가톨릭 의사협회	21
> 한국 매리지 엔카운터	22
> 한국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뚜스	23
▣ 교황님 말씀	



알 릴

◎ 2010년도 제43차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정기총회가 오는 2월 27일(토)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1층 강당에서 3시 미사를 시작으로 개최됩니다.



① 한국평협 2010년에 한국 평신도대회 열기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한홍순, 담당 민병덕 신부)는 지난 11월 20일 서울대교구 꾸르실료회관에서 2009년 4차 상임위원회를 통해 아시아 평신도대회가 열릴 예정인 2010년에 아시아대회를 잘 준비하고, 이를 한국교회 발전의 발판으로 삼기 위하여 아시아 평신도대회가 개최되기 전 한국 평신도대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한국평협은 이날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2010년도에 열리게 되는 아시아 평신도대회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면서 아시아 평신도대회가 교황청 주최로 열리는 만큼 한국교회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아시아 평신도대회가 열리는 8월 31일 이전에 각 교구평협 별로 준비한 내용을 모아 대의원들이 참석하는 방법으로 한국 평신도대회를 여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했다.

그 외에도 2010년도 사업은 기존의 사업에 아시아대회를 준비하는 데에 힘을 모으기로 하고, 각 교구의 소식을 나누며 친교를 다졌다.

이날 개막미사 후 ‘아시아 교회의 선교 사명’을 주제로 한 특강을 통해 서울대교구 총대리 염수정 주교는 아시아의 전반적인 경제, 사회, 정치, 종교적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제삼천년기에는 아시아대륙에서 신앙의 큰 수확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이러한 선교 사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서울에서 아시아 평신도대회가 열리는 것”이며 “2006년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 선교대회가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 평신도대회를 통해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① 노동의 유연성과 기업경쟁력을 주제로 사회포럼 열어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매년 ‘교회와 사회와의 대화’를 주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를 선정해 사회 각층의 입장을 들어보고 교회의 시각으로 성찰해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회포럼이 지난 11월 21일 오전 한국평협 상임위원회 기간을 이용해 꾸르실료회관에서 열렸다.

올해는 경제위기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노동의 유연성과 기업의 경쟁력에 대한 문제를 고찰해 보기 위해 김어상 교수(서강대학교 명예교수)가 먼저 ‘노동과 기업경영’이라는 주제로 「노동하는 인간」회칙을 중심으로 발제한 후 한국노동사회연구원 이명규 기획실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 황선자 연구위원, 국민일보 임향 경제노동전문기자가 지정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된 포럼을 통해 모든 패널들은 서로 다른 시각과 입장에서도 노동이 가진 순수한 가치는 존중되어야 하고, 인간 노동을 단지 금전적인 가치로 환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데에 입을 모았다.

② ‘주님 제 영혼에’ 제4회 우리성가 노랫말공모 최우수 당선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제4회 우리성가 노랫말 공모를 통해 6편의 우수한 노랫말을 선정했다.

‘사제의 해’를 맞은 올해는 특히 사제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노래한 응모작들이 많았고 그 중 2편이 각각 우수상과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상 수상작으로는 ‘주님 제 영혼에’(김태엽 프란치스코 / 수원교구 용문성당)가 선정됐고, 우수상으로는 ‘나의 집 예수’(조영희 안나 / 서울대교구 신림동성당)와 ‘영원한 사제시여!’(최효근 베네딕토 / 수원교구 하안성당)가 각각 뽑혔다.

장려상에는 ‘최양업 신부님’(김종식 요한보스코 / 서울대교구 양천성당), ‘저희에게 임하소서’(김인용 토마스아퀴나스 / 수원교구 삼가동성당), ‘살리시는 하느님’(배영자 미카엘라 / 수원교구 원곡성당) 등 3편이 선정됐다.





상금은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각 50만원, 장려상 각 30만원이며, 심사는 김형영 스테파노(시인), 정호승 프란치스코(시인)씨 외 한국평협 임영숙 요안나 문화위원회 위원장 등이 맡았다.

지난 11월 27일 열린 시상식에서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장인 염수정 주교는 축사를 통해 “다윗이 시편을 통해 하느님을 찬미한 것과 같이 우리 성가 노랫말과 작곡공모 사업을 통해 우리도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성가를 만들고, 부르자”며 이날 당선자들을 축하했다.

이번에 뽑힌 작품들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우리 성가 작곡공모’를 통해 작곡되며 그 중 선정된 작품들은 평신도주일 기념 제7회 서울대교구 성가합창제(명동대성당)를 통해 연주, 보급된다.

한국평협이 “우리 정서에 맞는 아름답고 친근한 성가를 만들어 신자들이 하느님과 더욱 일치하도록 함으로써 전례를 토착화하고 활성화하자”는 취지 아래 올해 4월부터 10월 말까지 시행한 노랫말 공모에는 총 44점이 응모해 우리 성가 창작에 대한 신자들의 높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었다.

한국평협 제26회 가톨릭대상에 조순희, 김복중 부부, 박양진 씨, 특별상에 박병선 박사 선정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지난 11월 27일 한국평협 고문과 회장단, 서울평협 회장단으로 구성된 가톨릭대상 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회의를 연 결과 제26회 가톨릭대상 사랑부문에 조순희, 김복중 부부와 박양진 씨를 선정하고,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직지심경)’과 외규장각 도서를 찾아낸 재불(在佛) 학자 박병선 박사를 특별상에 선정하여 2009년 12월 30일에 시상하고, 현재 투병중인 박병선 박사에게는 지난 1월 6일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 김복중, 조순희 부부



시상식에서 김복중, 조순희 부부는 “생명을 버리지 않고 지켜준 미혼모 여러분께 감사한다.”며 “앞으로 더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열심히 살겠다”고 소감을 밝혔고, 박양진 씨는 “나는 하느님이 주신 재물을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사용한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며 “이런 심부름꾼에게 상을 주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특별상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한 수원 성빈센트병원에서 박병선 박사는 환자복을 입고 상을 받기는 미안하다며 옷을 갈아입고 기다리고 있었고, “내가 무엇을 했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상까지 주는지 모르겠다.”며 “그래도 내가 아파 누운 덕분에 직지심경이 더 많은 이에게 알려졌고, 하루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살고 있다.”고 상과 도움에 대해 감사의 말을 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는 김복중·조순희 부부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수상을 축하는 연주로 청중의 마음을 더욱 훈훈하게 해줬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지난 1982년 신뢰회복운동과 함께 시작해 스물여섯 회에 이른 가톨릭대상은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이웃과 세상을 위해 묵묵히 헌신, 봉사해 공동선 증진에 크게 이바지한 개인이나 단체를 가려 뽑아 격려하고 시상하는 제도로 사랑, 문화, 정의평화부문으로 나누어 종교와 종파를 초월하여 수



▲ 박양진 씨

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 사랑부문으로 수상하게 된 조순희, 김복중 부부는 자녀를 낳지 않으려 하는 요즈음 친아들들을 두었음에도 세 명의 아이를 입양하여 키우고, 또 세 명의 아이를 위탁 양육하였으며, 청주교도소와 서울구치소 등으로 봉사활동을 다니는 등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참 어버이의 모습, 작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박양진 씨는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태어나 6·25 참전 용사로 군에서 하사관으로 장기 복무를 했고, 제대 후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부터 가난한 이들을



▲ 박병선 박사

▲ 박양진 씨 돋고 살기로 결심하고, 모든 재산을 정리하여 한국카리타스를 통해 방글라데시에 기부하여 가정형편이 어린이들을 도왔다. 또한 필리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10만 달러를 보내고, 국내 어려운 학생을 위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자신의 형편을 돌보지 않고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이웃을 돋기 위해 헌신한 분이다.

특별상으로 선정된 박병선 씨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직지심경)’과 외 규장각 도서를 찾아 낸 재불(在佛) 학자로 지난 1967년부터 프랑스국립도서관에 근무하면서 3천 ▲ 박병선 박사 만 종 이상의 장서를 뒤져 직지심체요절과 외규장각 도서 297권을 찾아내 주불 한국대사관에 알림으로써 우리나라의 문화재 반환운동에 불씨를 냉긴 분이다.



한국평협 Unum Omnes 가입해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지난 9월 19일부터 24일 까지 독일에서 열린 Unum Omnes(국제가톨릭교우협의회) 총회를 통해 불가리아, 벨라루스, 라이베리아, 리투아니아와 함께 새로운 회원으로 가입했다. Unum Omnes는 가톨릭 평신도 남성의 국제협의체로 바티칸에 본부를 두고 있다.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제5회 서울대교구 성가합창제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한홍순, 담당 민병덕 신부)가 해마다 평신도주일을 기념하여 실시하는 서울대교구 성가대의 잔치 성가합창제가 지난 11월 9일, 10 일 양일간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서울대교구 성가합창제는 경연대회 형식이 아닌 발표회 형식으로 각 지구별로 한 개 본당 또는 연합성가대가 출연해 우리성가 작곡공모 당선작인 지정곡과 자유곡을 연주한다. 올해는 16개 성가대가 참가해 주님을 찬미하는 노래가 명동대성당에 울려 퍼졌다.



본당 선교분과위원 피정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서울대교구 산하 각 본당간 선교활동을 돋고, 서로 정보를 나누며, 교구가 추진하고 있는 ‘복음화2020운동’의 달성을 위해 본당 선교분과장과 위원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5일 가톨릭회관 1층 강당에서 선교피정을 실시했다.

한홍순 회장의 ‘선교영성’을 주제로 한 강의에 이어 ‘예수 그리스도와 선교’를 주제로 한 정월기 신부의 강의, 파견미사 순으로 진행된 선교피정에 150 여 명의 본당 선교분과위원들이 참여해 시종 열띤 분위기를 이어갔다.

서울평협은 해마다 선교 일선에 임하는 신자들을 위

해 선교포럼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피정은 대림시기를 맞아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다시 한 번 선교열심을 회복하고, 격려하는 의미로 연 것이다.

평신도학교 공의회과정 2학기 71명 수료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해마다 30주 과정으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을 공부하기 위해 1, 2학기에 나눠 실시하고 있는 평신도학교 ‘공의회과정’이 지난 12월 14일 2009년도 2학기 15주 과정을 모두 마치고 수료미사를 봉헌했다.

총 76명이 수강한 이번 학기 과정에서는 71명이 수료했고, 1년 과정 전체를 마친 수료자도 47명이 나왔다.

상임위원회 열어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지난 12월 2일 저녁 올해 사업을 정리하고 내년 사업을 계획하기 위한 상임위원회를 열고 2010년에 거행되는 아시아 평신도 대회에 적극 참여할 것을 결의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에 예년과 같이 ‘공의회 과정’과 ‘성 최경환 가정교실’ 등 평신도교육에 매진하고,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실시하도록 예정돼 있는 아시아 평신도대회와 그 이전에 실시하기로 한 한국 평신도대회에 마음과 힘을 모아 참여하기로 했다.



단체 소식

서울대교구 가톨릭경제인회 쌀나눔과 성금전달



서울대교구 가톨릭경제인회(회장 최철수, 담당 조학문 신부)는 '제6회 나눔은 희망입니다' 행사를 지난 11월 22일(일) 교구청 별관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경제인회와 서울대교구 사회복지회, 서울빈첸시오회가 함께 주관했다. 가톨릭경제인회는 회원들의 정성어린 찬조금으로 추운 겨울 외롭게 살아가는 이웃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등에 쌀 1,700포를 지원했다.

이날 행사는 최철수 회장 외 회원과 자원봉사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김운희 주교 격려사, 짐장 담그기, 쌀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 최철수 회장은 경과보고를 하며 이 사업이 매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모든 면에서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이주 노동자 무료진료소인 '라파엘클리닉'에 현금 1,000만 원과 성탄절을 맞이하여 쌀 700포도 전달했다.

서울 가톨릭교수협의회 피정세미나 개최

서울 가톨릭교수협의회(회장 이진규, 담당 최기섭 신부)는 지난 11월 21~22일 양일간 경기도 수원시 소재 마리아의 아들 수도회에서 2009년도 피정 세미나를 개최했다. 서가협은 대학교육의 현장에서 평신도 사도직을 수행하는 서울관구 지역 가톨릭 교수들의 공동체이다.

이번 피정 세미나에서는 교육과 연구 및 입시행정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40여 명의 대학교수들과 사제들이 참여하여 "한국 젊은이들의 가치혼란과 가톨릭 교수의 역할"이라는 실천적 주제로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대학청년들의 고민과 시대적 교육현안들을 구체적으로 진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교회와 청소년"으로 사목지침을 새로이 정립한 수원교구 이용훈 주교는 피정의 파견미사를 집전하였으며, 또한 특강 및 강론을 통해 교회의 올바른 사회적 역할과 청소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 서강대학교 총장 박홍 신부는 기조강연에서 대학문화 및 교육현장에서의 가치혼란 및 중심가치의 부재를 지적하고, 예수라는 중심가치가 교육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가톨릭 교수들 개개인 안에서도 실천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피정에 참여한 교수들 스스로 가톨릭 교수들이 나아갈 바를 진지하게 토론하고 묵상하는 자리도 이어졌다.

서가협은 매년 정기적으로 서울관구지역 가톨릭 교수들을 대상으로 피정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가톨릭지도자들과 공동체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속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지성인들의 모임으로서 전통과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다.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2009 임원 연수, 팔봉산 등반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정태경, 영성지도 문희종 신부(2009년 평협 임원연수로 11월 7일(토) 팔봉산등반을 가졌다. 영성지도 문희종 신부, 정태경 회장, 평협 임원과 가족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산 팔봉산 산행을 하고 만리포를 경유해서 하루 연수를 다녀왔다. 1년 동안 함께 수고한 임원들은 대화와 친교의 시간을 나누며 2010년에도 단합된 마음으로 평신도사도직에 더욱 충실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2009 교구 평신도 사도직 단체 임원 연수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 단체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가 11월 14일 교구청 지하 대강당에서 열렸다. 70여 명의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연수는 ‘교회법에 나타난 평신도 단체’를 주제로 한 특강과 교구장 주교 말씀 등으로 진행됐다.

교구장 이용훈 주교는 2010~2012 교구장 사목교서의 골자를 설명하며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된 마음으로 교회를 활성화시켜나가면서 내적, 외적 복음화를 토대로 새로운 복음화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전하고, 특히 가정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사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길민 신부는 특강을 통해 “내가 선택한 단체에 자부심을 갖고 서로 존중하며 대화를 통해 화합하여 활동한다면 하느님께서도 기뻐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연수 끝에 새로 선임된 단체장들을 소개한 교구 복음화 국장 문희종 신부는 “기본적인 일을 소홀히 하면서 단체활동을 할 수는 없다”며 본당에서의 충실히 성사생활과 단체임원의 역할을 당부했다.



2009년 4분기 상임위원회

수원평협 2009년도 4/4분기 상임위원회가 교구청 12월 19일 교구청 5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날 회의에서는 3분기 주요 사업업무보고와 대리구별 사업결과 보고에 이어 내년 1분기 사업계획보고가 있었다. 안건 토의에서는 1월 30일에 있을 상반기 총회장연수, 평협에서 발행하고 있는 평협소식지의 새로운 방향모색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대리구 상임위원회에서는 새로 출범된 경제인연합회의 2월 정식 총회를 위한 홍보와 참여, 교구 50주년 기념 영성관건립에 대한 관심을 가져 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영성지도 문희종 신부는 “교구 50주년을 위한 각종 준비위원회의 발족과 더불어 많은 평신도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바라며, “앞으로 100주년을 향하여 발돋움하는 교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정태경 평협회장은 “한 해 동안 교구나 대리구에서 큰 행사에 열심히 참여해 주신 회장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5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에도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2010년 1분기 상임위원회는 3월 20일(토) 16시 교구청 5층 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단체 소식

가톨릭여성연합회 신양학교 16기 졸업 미사

수원교구 가톨릭여성연합회(회장 조정은)에서 주관하는 ‘신양학교’ 16기 졸업식이 12월 2일 있었다. 2008년 3월 5일 입학하여 2년 과정을 마친 16기 졸업생 총 17명은 신양학교 재학생들과 여성연합회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교구장 이용훈 주교 주례로 미사를 함께 봉헌하고 졸업장 수여식을 가졌다.

한편, 이날 2009년 3월에 입학한 17기 중 53명도 1년 과정을 수료했으며, 2년 개근·정근 1년 개근·정근자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신양학교는 교회 여성들의 올바른 평신도사도직 수행을 위한 지속적 신앙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1993년 3월 개교했다. 현재까지 총 1,155명이 입학하여 39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2010년도 신양학교 강의는 오는 3월 3일 개강 피정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 까지 33주간 교구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가톨릭경제인회 창립총회 개최

수원교구 가톨릭경제인회(회장 김성균, 영성지도 이영배 신부)가 지난 12월 5일 교구청 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가졌다. 교구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신자 기업인, 상공인들이 모인 경제인회는 회원 34명과 교구 평협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초대 회장에 김성균(안드레아·수원대리구 영통성령본당)씨를 선출했다.



아울러 감사에는 이강웅(스테파노·안양대리구 매곡본당), 김창배(스테파노·수원대리구 조원솔대본당)씨를 선임했다.

이 날 경제인회는 회칙발표와 함께 ▲회원의 신앙적 자질향상과 기업윤리 정립을 위한 연구 보급 ▲교회 발전 및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활동 참여 ▲회원 상호간 친선 유대 도모 ▲사회복지 지원 등 총 7개 항의 사업계획도 발표했다.

운전기사사도회 수단 선교회에 성금 기탁

12월 12일 교구 운전기사사도회(회장 정병화, 영성지도 안형노 신부)의 아프리카 수단 선교회에 성금전달식이 교구청 5층 회의실에서 이뤄졌다. 정병화 회장은 “교구 신부님들이 파견되어 있는 수단의 어려운 사정을 전해 듣고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작은 정성이지만 수단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꾸르실료 도입 40주년 맞아 2010년 계획발표

수원교구 꾸르실료(대표간사 조부연, 영성지도 송현석 신부)는 꾸르실료 도입 40주년이 되는 2010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주제는 ‘젊은이와 함께 교회의 미래



를!', 부제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로마 14.8)로 정하였으며, 펼칠 사업으로는 ▲젊은이 아우르기 ▲예수님 닮기 ▲일꾼되기 ▲40주년 추억 한마당 등 크게 4가지로 나누어 각각의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했다.

가톨릭미술가회 제12회 정기전

수원가톨릭미술가회(회장 임정열, 영성지도 나경환 신부)는 12월 16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 프라자에서 '제12회 정기전'을 열었다. 시작 미사와 함께 윤자희 만들린 오케스트라의 축하 연주가 곁들어지면서 시작된 정기전은 총 52명의 회원이 참여하였으며. 성화성물전과 달리 자유로운 주제로 한국화, 공예, 조각, 디자인, 이론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각자의 기량을 펼친 가운데 선보였다.

"주님께서는 미술을 통하여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라는 모토로 미술을 통한 사도직을 수행하고 있는 수원가톨릭미술가회는 지난 1998년 창립되었으며 현재 6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매년 봄에는 성화성물전을 가을에는 정기전을 개최하고 있다.

수원교구, 한국가톨릭전례꽃협회 창립미사

수원가톨릭전례꽃꽃이회의 오랜 염원이던 한국전례꽃협회가 지난 12월 21일 오후 2시 의왕시에 위치한 가톨릭교육문화 회관에서 창립 모임을 했다. 수원가톨릭전례꽃꽃이 연구회는 그동안 제대 꽃꽃이 봉사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2002년 소화 꽃꽃이 교실을 각 대리구별로 운영해오며 보다 체계적인 양성 교육과 교회 내 꽃꽃 이를 전문화하고 제단 꽃꽃이를 발전시켜 복음선포와 사회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이번 창립을 주도했다.



"꽃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결작품 중의 하나"라고 축사를 건넨 이용훈 주교는 "이 꽃을 가지고 제대를 꾸미는 것은 하느님께 대한 마음과 정신을 바치는 것"이라며 "전례꽃꽃이협회의 활동이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가톨릭전례꽃협회는 2010년에 가톨릭 전례 꽃 아카데미 (Catholic Liturgy & Flower Academy)를 1년 과정으로 열어 미사 전례에 맞게 제대 앞을 장식하여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는 인재양성을 시작한다. 개강일은 2010년 3월 8일이며 원서접수는 1월 18일부터 가톨릭 교육문화 회관에서 한다.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제9대 회장단 구성



2009년 10월 31일(토)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이해도, 담당 김영호 신부) 정기총회가 열렸다. 이날 총회에는 조환길 주교, 하성호 사무처장 신부, 김영호 담당신부, 각 본당 평협 회장 68명, 제 단체장 36명, 상임위원 16명이 참석하여 묵주기도를 시작으로 전광진 신부의 교회에 대한 특강과 회의, 교구 사무처장 하성호 신부의 2010년 사목교서에 대한 강의로 이어졌다.

회의 후 파견미사에서 제 9대 평협 회장으로 김종해 경제인회 회장을 조환길 주교가 임명했다.



제9대 회장단 첫 상임위원회와 주교 간담회 개최

대구대교구 평단협은 정기총회 개최 이후 2009년 11월경 제9대 회장단과 상임위원들이 구성하여 11월 30일에 첫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첫 시작을 알리는 미사를 함께 봉헌하고 회의를 개최했다.

이어 회장단과 상임위원들은 12월 10일에 조환길 주교와 첫 간담회를 갖고 교구평협이 2010년도에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다.



송년의 밤 행사

대구대교구 평단협은 2009년 12월 29일 교구장 조환길 주교와 사무처장 신부 그리고 평단협 담당 김영호 신부를 비롯 사목국 수녀, 사목국 직원, 평협 상임위원 부부들과 함께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송년의 밤은 2010년도에 다같이 힘을 모아 잘해보자는 교구장의 말씀을 필두로 김종해 회장의 답사에 이어 3부 행사로 조주교의 노래와 상임위원부부들의 노래도 듣는 등 즐거운 시간으로 송년의 밤 행사를 마무리 했다.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제12지구 회장단 창립회의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장춘길, 담당 신부)는 교구 내 지구개편을 통하여 동안 11개 구역(울산포함)을 12개 구역으로 편성하여 사목을 펼치게 됨으로 신설되는 12지구의 첫 회장단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했다.

지난 12월 14일 오후 6시에 해운대 달맞이성당에서 12지구 첫 회장단 회의를 실시하며 박성태 (12지구장 달맞이주임)신부는 본당 주임사제의 사목방침을 잘 보좌하여 선교하는 교회, 가난한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의 참 모습을 실천하는 지구가 되고 본당 평협회장은 신자들과 사제와의 중간 가교 역할을 잘 해 주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부산평협 장춘길 바오로 회장은 신설지구이지만 부산을 대표하는 해운대를 중심으로 교구장 사목방침인 ‘좋은 본당 가꾸기’에 함께 동참하고 ‘쉬는 교우 모셔오기’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하기를 권했다. 평협 홍보분과장 최재석 요한 형제가 함께하여 회의진행을 도왔다.



시복·시성을 위한 도보성지순례 총 17차 실시

부산교구 평협과 부산교회사연구소(소장 한건 신부)가 공동 주관하는 ‘시복시성을 위한 도보성지순례’가 2008년 8월 30일 수영 장대골에서 시작되어 2009년 12월 26일 까지 총 17회 차가 실시됐다.

이 도보성지순례는 현재 시복시성이 진행 중인 한국



교회 순교자 124 명 중 부산교구 순교자 이정식(요한)과 양재현(마르티노)의 시복시성에 부산 교구민들의 기도와 정성을 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들이 성인품을 받을 때까지 매달 넷째 주 토요일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계속된다.

매달 마지막 토요일에 실시되는 이 도보성지순례에는 본당, 신심단체, 지구별, 레지오 등 교구 곳곳에서 200여 명이 넘는 신자들이 함께 도보순례를 하며 횟수가 거듭 될수록 참가단체가 다양해지고 인원도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으며 도보순례에 가족이 함께 참여하기 권장하며 2代 3명 이상 참가하는 가족에게 기념선물을 드리고 있고, 또 주일학교 어린이가 참가하면 별도의 선물도 증정한다.



부산 평협 밥한 공기로 사랑 나누기'

부산교구 평협은 장춘길 회장을 중심으로 전 임원이 지난 12월 6일(일) 오후 4시부터 부산진역광장에서 신빈회(무료급식 운영)와 함께 교구 로사리오 카리타스에서 운영하는 '밥한 공기 이동 밥차'를 이용하여 무료급식 봉사를 했다. 특히 이두호 기획분과장이 직접 준비한 따뜻한 밥과, 쇠고기 국, 반찬 등으로 어느 때 보다 푸짐하고 알찬 밥상이었다.



한편, 부산평협 사회복지분과에서는 은인들의 도움을 받아 생필품을 중심으로 겨울맞이 선물꾸러미를 만들어서 300여 명의 모든 급식자에게 나눠주었다. 이날 함께 한 부산교구 총대리 이영묵 목사들은 "우리가 참으로 실천해야 할 이웃사랑의 실천이 여기 있다"라고 하며 부지런히 밥상을 날렸다.

또한 12월 8일(화) 오전 11시에는 교구장 황철수 주교를 비롯한 교구청 사제단이 부산진구 전포동 돌산공원을 찾아 '밥한 공기 이동 밥차'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단체 소식

부산 가톨릭경제인회, 가톨릭 경제인상 모범교구상 수상



한국가톨릭경제인회(회장 최철수)가 주관하는 제17회 자랑스러운 가톨릭 경제인상 시상식에서 부산교구 가톨릭 경제인회가 모범교구상을 수상했다. 지난 12월 19일 명동 성당에서 정진석 추기경 주례로 열린 행사에서 모범교구상을 수상한 부산교구가톨릭경제인회(회장 김해권)는 평소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고 교구 내 평신도 단체 중 가장 활달한 단체 중 하나이며 영적쇄신과 활동이 어우러진 공로로 모범 교구상을 수상했다.

가톨릭경제인회 대림절 초청특강

- 선진국으로 가는 정신 운동 -

부산가톨릭경제인회(회장 김해권, 담당 조옥종 신부)는 12월 7일(월) 오후 7시 범일동에 소재한 하모니 예식장 컨벤션홀에서 대림절초청특강을 실시했다.

국군 제2작전사 정두근 중장이 '선진국으로 가는 정신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했으며 "상호 존중과 배



려”하는 풍토를 우리사회 모두가 펼쳐가는 아름다운 문화운동이 되기를 소망했다.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한국최초의 미사봉현지 성역화 기원 산상미사 봉헌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강신근, 담당 이형수 목사)에서는 지난 2009년 11월 7일(토) 한국최초의 미사봉현지인 진해옹천 남산왜성의 성역화를 기원하는 ‘산상미사’를 교구총대리 이형수 목사와 진해지역 사제단 그리고 350여 명의 신자들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봉헌하였다.



진해 옹천 남산의 ‘왜성’은 한국에서 최초로 미사가 봉헌된 곳이다. 임진왜란 중 일본군의 군종사제로 1593년 12월 27일에 진해시 옹천 바닷가에 도착한 세스페데스신부(예수회/스페인)는 1년여 간 옹천에서 사목하면서 일본군 신자들에게 고해성사와 미사를 집전하고, 인

근마을인 와성마을과 사도마을을 다니며 선교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조선인 중에서 일본에 포로로 잡혀가 예수회에 입회하여 한국인 최초의 수사가 된 권원선시오는 포교를 위하여 조선입국을 수차례 노력하다 일본 시마바라에서 순교하였다고 한다.

이날 행사는 한국교회의 시작으로 보는 1784년 북경에서 세례를 받은 이승훈(베드로)의 역사보다 192년여 앞선 교회전사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교구평협에서 중심이 되어 매년 미사를 봉헌하고 신자들에게 올바른 교회역사를 심어주기 위하여 준비한 행사이다.

‘왜성’은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더구나 경이롭고 신비로운 성지의 조건과 천혜의 아름다운 환경을 자랑한다. 스페인 국민들은 세스페데스 신부의 조선입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지난 1993년 입국400주년을 기념하여 진해시에 조형물을 기증하였으며, 진해시에서도 지역문화재로서 보존하고 관리하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평신도의 운동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지로 태어나기를 소망하고 있다.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평협 · 여성위원회 임원연수회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정기수, 담당 박성열 신부)는 지난 11월 13~14일 금호화순리조트에서 여성위원회와 새로 부임하신 담당사제와 함께 임원 30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 펼쳤던 사업들을 평가하고 2010년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등 임원연수회를 가졌다.

최창무 안드레아 교구장 영명축하식

광주대교구 평협에서는 지난 11월 30일 교구장이신 최창무 안드레아 대주교의 영명축일을 맞아 축하미사와 축하연을 임동 주교좌성당에서 가졌다. 이날 원로사제와 교구사제, 수도자, 단체장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해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순천지구 한마음체육대회

광주대교구 순천지구(회장 오창호, 담당 안호석 신부)는 11월 7일 순천연향초등학교에서 지구 내 15개 본당 200여 명이 모여 줄넘기, 배구, 줄다리기 등 사제, 수도자, 평신도가 어우러진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조곡동성당 바자회 참석차 오신 교구장 최창무 대주교의 격려 속에서 더욱 기쁜 행사가 되었다.



단체 소식

장애인복지회 빛고을한마음체육대회, 송년행사

광주대교구 장애인복지협의회(회장 김명선, 담당 임영배 신부)는 지난 10월 31일 광주장애인종합체육관에서 650여 명의 장애인 및 자원봉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흥겨운 놀이 한마당을 펼쳤다. “너와 내가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주제로 장애인의 화합과 사회통합 그리고 삶의 희망을 고취하기 위한 목표로 실시되는 장애인 체육대회에 국민은행 호남영업지원본부, 성빈센시오아바오로회, 운전기사사회 등의 단체에서 후원을 하여 더욱 풍성하게 해 주었다.

또한 12월 27일에는 평생교육원 대성당에서 장애인 한마음 송년행사로 1부 미사, 2부 시상식, 3부 다과회를 17개 장애인단체와 자원봉사자 400여명이 참여해 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의 미사집전으로 다사다난했던 2009년을 보냈다.



꾸르실료 제28차 교구 울뜨레야

광주대교구 꾸르실료 사무국(주간 나현식, 담당 윤빈호 신부)은 11월 14일 호남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교구 울뜨레야를 개최하였다. 많은 사제, 수도자를 비롯한 1,200 여 꾸르실리스따가 함께 어우러진 한마당 잔치였으며, 꾸르실료 운동의 발전을 다짐한 약속의 시간이었다. 성직자 룰료에서 이종희 요한 신부는 꾸르실리스따



에게 크리스천 삶의 자세를 일깨워 주었으며, 특별히 윤공희 빅토리노 대주교는 기념미사를 집전하는 영광을 주었다. 특별히 2009년은 광주대교구 꾸르실료 도입 40주년을 기념하는 해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요한 8,12)라는 주제로 본당연결고리기도, 기념음악회, 도보성지순례 등 뜻 깊은 행사를 가졌다.



성체신심대피정

광주대교구 지속적인성체조배봉사자협의회(회장 황규열, 담당 고재영 신부)는 11월 23일 임동주교좌성당에서 “교회는 성체로 산다”라는 주제로 8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체신심 대피정을 가졌다. 이날 강의는 박효철(청주교구 성령쇄신봉사회 담당사제) 신부가, 파견미사는 윤공희 대주교가 집전했다.



대 종파(가톨릭, 개신교, 불교, 원불교)와 함께 개최한 전주에서 출발해서 송광사, 천호, 나바위, 미륵사지, 초남이를 거쳐 전동성당으로 돌아오는 180 여Km 거리에 5박6일의 일정이 소요되는 도보순례길로 1년여의 준비 과정을 거쳐 완성했다.

선포식은 이병호 주교를 비롯해 4대 종파 대표들과 김완주 도지사, 최규호 도교육감, 송하진 전주시장, 많은 순례자들이 함께 한 가운데 열렸다. 이병호 주교는 “세상을 바꿀 사명을 인식하며 이 길을 함께 걷자.”고 당부했다. 선포식을 마치고 “아름다운 순례길 시작을 선포합니다.”라는 구호를 다함께 외치며 경기전 마당에서 출발한 순례자들은 순례 코스인 원불교 교당을 거쳐 한벽루, 치명자산 성지, 월암마을과 화심 등을 거쳐 송광사에 도착했다. 송광사에서 준비한 비빔밥으로 저녁 식사를 한 후 산사체험 행사로 이병호 주교의 강의와 불전사물 시연과 저녁예불 참석 등의 행사를 마친 다음 산사 체험 신청자들만 남고 돌아갔다.

2차 코스 순례날인 11월 1일(주일)은 이병호 주교와 임정엽 완주군수 등과 함께 100 여 명이 송광사를 출발 천호성지로 향했다.

비에 젖은 낙엽 때문에 매우 미끄러운 오도재 고개를 힘겹게 넘어 고산 성당에 도착, 본당의 날 행사로 차린 음식을 점심으로 대접받고 오후 4시 30분경에 천호성지에 닿아 아중성당 성가대의 환영 노래와 도착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다. 곧바로 천호 부활성당에서 가진 순례길 선포 기념식에서 허광영 원불교 전북교구장과 송광사 도영 주지스님의 강의를 듣고 신자들은 교구장 이병호 주교 주례의 주일미사를 봉헌하고 저녁식사를 마친 뒤 해산했다.

1, 2차 코스를 이틀 간 완주한 이병호 주교는 “4대 종단이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은 그동안 유래가 없던 일”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아름다운 순례의 길 선포식, 4대 종파가 한자리에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강상근, 담당 유장훈 몬시뇰)가 후원하는 아름다운 순례의 길 선포식이 지난 10월 31(토) 경기전 앞마당에서 열렸다. 이날 선포식에 전주 평협 임원이 모두 참석해 함께 1박 2일의 여정을 마쳤다.

아름다운 순례길은 사단법인 한국순례문화연구원이 4



이라며 “이 세상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 종교인들이 할 일이므로 이런 일을 통해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원로은퇴사제 간담회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에서는 지난 11월 13일 ‘원로은퇴사제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 행사에는 팔순을 넘긴 박영규 신부와 김치삼 신부를 비롯해 반평생 넘게 한국에서 사제생활을 해온 지정환 신부, 배영근 신부, 김환철 신부, 황인규 신부, 오현택 신부, 리수현 신부, 서용복 신부, 윤에릭 신부 등 현신적으로 사목에 전



념하다 일선에서 물리나 계시는 교구의 어른 열 분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다. 강상근 회장의 인사에 이어 지정환 신부의 답사, 유장훈 요셉 몬시뇰의 식사전 기도 후에 평협 임원들과 원로은퇴 사제들은 삼삼오오 함께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는 등 화기애애한 시간이 되었다. 변함없는 유머와 노익장을 보여주는 모습에서 주님의 충만한 성령이 함께하심에 찬미와 감사를 드렸다. 내년에도 의미 있는 만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원로 은퇴 사

제들의 영육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간소한 선물을 증정하고 기념사진을 함께 촬영한 후 간담회를 마쳤다.

사랑의 연탄배달 나눔

전주교구 평협은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 카리타스봉사단과 함께 2009년 12월 21일(월) 중노송동과 평화동에서 2개 팀으로 나누어 따뜻한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 사랑의 연탄 2,000장을 직접 전달하는 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와 천주교 전주교구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의 예산을 지원받아 전주, 완주, 익산, 진안, 무주지역에 있는 어려운 이웃 25세대에게 200장~250장씩 총 6,000여 장의 연탄을 전달하여 추운 겨울 혼자 사시는 노인들에게 정을 나누고 조금이라도 따뜻한 겨울을 나시도록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전달하고자 하며, 앞으로도 힘이 필요한 곳을 찾아 더욱 열심히 봉사할 것을 다짐했다.





한국가톨릭 간호사협회

용인 성직자 묘소 참배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회장 김남초, 담당 최영식 신부)는 창립 30주년 기념행사의 마무리로 11월 위령성월을 맞아해 11월 21일(토), 회원 40여 명이 용인 성직자 묘소를 참배했다.

가톨릭간호사협회 창립에 숨은 공로자이셨던 고 방용자 데레사 수녀와 초대 회장인 고 이춘원 놀벨파 수녀, 그리고 창립을 지시하신 고 김수환 추기경께서 잠들어 계신 용인 성직자 묘소를 참배했으며, 김창훈 신부의 집전으로 추모미사를 봉헌했다. 이 행사는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가 주최하고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동창회와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이 후원했다.



한국가톨릭 경제인협의회

송년감사미사와 자랑스러운 경제인상 시상식

한국가톨릭 경제인협의회(회장 김철수, 담당 조학문 신부)는 지난 12월 19일(토) 명동대성당에서 ‘송년감사미사와 제17회 자랑스러운가톨릭경제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한 해를 보내며 주님께 감사드리는 이 미사는 정진석 추기경님께서 집전하시고 회원과 가족, 수상자들이 참석했다. 이어서 제17회 자랑스러운가톨릭경제인

상 시상식이 실시됐다.

올해는 대상 수상자는 없고 특별공로상은 유용근(명지대학교/설립이사) 자문위원이 수상했다. 유용근 이사는 가톨릭경제인회 운영위원과 수석부회장을 거쳐 현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평생을 교육사업과 사학육성에 헌신하여 왔다. 그 외에도 각종 교회 기관과 한국천주교회 주요행사에 요직을 맡아 봉사하였고, 국제라이온스클럽 부총재직을 역임하며 어려운 이웃들과 나눔을 실천하였다. 공로상은 대구 가톨릭경제인회 채용희((주)내외건설/대표이사) 고문이 경제인회와 대구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수상했고, 우리 회 친교모임 반석회 담당부회장으로 각종 행사와 사업에 공로가 큰 허경훈 부회장이 받았다.

모범교구상은 부산 가톨릭경제인회(회장 김해권)에 돌아갔다. 부산경제인회는 전국총회를 주관하였고 협의회 각종 행사와 사업 및 교구발전에도 적극 협조한 공로가 컸다. 올해 처음 신설한 모범관리자상 수상자인 이시우 (주)케이엔윌텍스 상무이사는 회사 내에서는 해외수출현장의 제품생산 및 납품관리를 성실히 할 뿐만 아니라 전교활동에도 열과 성을 다해 회사 사주와 많은 직원들이 입교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제15회 모범근로자상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시설팀 연명의 기사에게 돌아갔다. 연명의 기사는 치매 투병중인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고 입사이후 항상 성실히 근무한 공로로 수상하였다. 시상식 후 전 회원이 함께 만찬을 하며 수상자들을 격려하였고 함께 송년인사를 나눴다.





한국가톨릭 군종후원회

송년 월례미사와 회장단 취임식



한국가톨릭 군종후원회는 2009년 12월 7일(월) 가톨릭회관 7층 강당에서 군종교구장 이기현 주교 주례로 송년월례미사 봉헌과 회장단 취임식을 열었다.

1998년 육군참모총장에서 예편한 직후부터 10여 년간 부회장, 회장으로 봉사해 온 도일규(안드레아, 예비역 육군대장) 제6대 회장에 이어 서만규(베드로, 서울 참원동본당) 제7대 회장이 이기현 총재주교의 임명장을 받고 그 임기를 시작하였다.

신임 서만규 회장은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 공무원 출신으로서 현재 성암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로 재직 중이다.

한국가톨릭 나사업연합회

한국가톨릭 나사업연합회의 제43차 정기 총회'

한국가톨릭 나사업연합회(회장 채규태, 담당 김화태 신부)의 '제43차 정기 총회'가 연합회 사업기관 대표와



봉사 수도회 및 종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 11월 18일(수요일)에 서울 합정동 연합회 사무실에서 개최됐다.

천주교 구라회 하유설 신부의 시작기도와 회장 채규태 교수의 인사로 시작된 이 날의 총회는 2009년도 경과보고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2009년 11월 11일 수요일) 살레시오회의 황복만 수사가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의 회계감사 결과, 활동보고 그리고 2010년도 예산(안)심의가 있었다.

한국가톨릭 언론인협의회

가톨릭언론인 신양학교 21기 수료식



가톨릭언론인협의회(회장 김지영, 담당 허영엽 신부)가 주관해오고 있는 가톨릭언론인 신양학교가 21기 수료생 21명을 배출했다. 이 수료생들은 지난해 하반기 10주 동안 매주 수요일 저녁 서울 명동성당 가톨릭회관 소강당에서 강의와 토론에 참석하고 친교를 다져왔다. 가톨릭언론인협의회는 지난해 12월 9일 저녁 명동성당 구내 코스트홀에서 신양학교 21기 수료미사와 함께 수료식을 열었다.

이날 미사는 염수정 서울대교구 매스컴위원회 위원장과 허영엽 가톨릭언론인협의회 담당신부, 고준석 가톨릭신문출판인협의회 담당신부, 김영춘 가톨릭커뮤니케이션협의회 담당신부가 집전했다. 또 수료생들의 가족과 동료, 가톨릭언론인 협의회 회원등 1백여 명의 형제



자매들이 참석해 이들의 과정 수료를 축하했다. 수료생들에게는 정진석 추기경이 수여하는 수료장을 염주교가 전달했으며 축하 꽃다발과 큰 박수가 쏟아졌다.

수료식 행사가 끝난 뒤에는 별관에서 가톨릭언론인협의회 2009년 송년잔치가 벌어졌다. 송년잔치에서 회원들은 신앙학교 21개 수료생들의 퍼포먼스 등 흥겨운 프로그램과 함께 만찬과 대화를 즐겼다.

언론인 산악회 50회 기념행사 개최

매월 한차례씩 전국의 성지를 순례하고 성지인근의 산을 등반해온 가톨릭언론인 산악회(회장 최홍운)가 지난해 12월 18일 50회 기념행사를 치렀다.

회원 30명은 이날 저녁 덕수궁 앞에서 전세버스로 출발, 자정 넘어 주문진의 성바오로 수도회 피정의 집에 도착해 잠시 눈을 붙인 뒤 동해안 일출을 감상하고, 강릉의 임당동 성당에서 미사에 참례했다. 미사 후, 회원들은 김현준 주임신부로부터 춘천교구 영동지역의 순교 역사를 들었다. 이 지역은 병인박해 때 많은 신자들이 강릉 칠사당과 임영광에서 심문을 받고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원들은 이어 오대산 소금강을 5시간에 걸쳐 등반하고 저녁식사를 마친 뒤 귀경했다.

산악회는 11월에는 경기 화성의 요당리 성지를 순례했다. 요당리 성지는 과거 충청도 내포지장과 내륙, 서울을 잇는 선교루트의 교두보 역할을 하였던 곳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기해년(1839년)과 병인년(1866)의 두 차례 박해 때 많은 신자들이 순교한 신앙의 요람지였다.



가톨릭 신문출판인협의회 12월 월례미사

가톨릭언론인협의회 소속 단체인 UCIP(가톨릭 신문

출판인 협의회, 회장 황진선, 담당 고준석 신부)는 지난 해 12월 17일 정오 중구 정동의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출판인회(회장 김정동) 주최로 미사를 봉헌했다. 또 11월의 월례미사는 같은 장소에서 동아일보 교우회(회장 김일동)가 주최했다. 신문출판인 협의회는 8년째 매월 한차례 점심시간을 이용해 회원사들이 돌아가며 미사를 주관하고 미사 후 점심을 함께 나누고 있다.

가톨릭커뮤니케이션협회 연말 회의

가톨릭언론인협의회 소속 단체인 SIGNIS(가톨릭커뮤니케이션 협의회, 회장 오광성, 담당 김영춘 신부)는 지난해 12월 16일 저녁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서울 지역 임원 20명이 모여 회의를 열어 2009년도 결산보고를 듣고 2010년 예산안을 가결했다. 또 11월 18일 저녁에는 서울 양재동 성당에서 EBS교우회 주최로 85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었다. 미사 후 총회에서는 가톨릭커뮤니케이션협회의 차기 회장으로 김수웅 미디어 플러스 부회장을 내정했다. 김수웅 회장 내정자는 SBS 이사 편성본부장과 상무이사 관리본부장을 거쳐 대표이사 부사장을 지냈다.

한국가톨릭 의사협회

필리핀 태풍과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 기부해

한국가톨릭의사협회는 한국가톨릭의료협회와 함께 지난 11월 27일 필리핀가톨릭의사협회에 2,000달러를 기부했다. 이는 한국가톨릭의료협회의 해외의료봉사지 추가 선정을 위한 필리핀 답사 일정 중에 필리핀가톨릭의사협회 사무실을 방문해 이루어졌으며 이 날 전달된 성금 중 1,000달러는 필리핀가톨릭의사협회의 태풍 켓사나 구호 활동을 위해, 1,000달러는 인도네시아 가톨릭병원협회(Perdhaki)의 폐당 지진 구호를 위해 각각 사용될 것이다. 한편 한국가톨릭의사협회, 필리핀가톨릭의사협회, 인도네시아 가톨릭병원협회는 모두 아시아



가톨릭의사협회 회원 단체로 아시아가톨릭의사협회는 아시아 지역의 가톨릭 의료인들의 협력 및 해외의료봉사와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어 대표팀은 천주교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위원장이며 서울대교구 종대리 염수정 주교와 김운희 주교를 예방했다. 교구청 1층 소회의실로 자리를 마련한 염수정 주교는 “서울서 82차 ME주말을 받으면서 본당 사제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었다”고 감사인사를 전하며 ME가 이제 도입 32년이 되었으니 한국교회와 우리사회에 뿌리를 내려주길 당부했다.

“특히 2천년부터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가 넘어 벌써 고령화가 시작 됐는데 제3기 인생을 소중하고 행복하게 이어줄 노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한국ME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며 “ME 부부들이 해야 할 일이 참 많고 적극적으로 해주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 메리지 앤카운터

한국ME 제21대 대표팀 정진석 추기경 예방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말 자주 하세요

한국 메리지 앤카운터 제21대 새대표팀(김태성, 김희숙 부부, 최준웅 신부)과 상임위원 사제, 부부들은 2009년 11월 25일 오전 서울 명동 교구청 집무실로 정진석 추기경을 예방했다.

제21대 한국ME에 축복을 주신 정추기경은 “김수환 추기경님은 투병 중에도 간병인에게 늘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가족들끼리도 서로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해야 감사와 사랑의 감정이 생긴다”며 가정 안에서 화목을 이룰 것을 당부했다.

마침 이날은 우리나라가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선포되는 DAC(개발원조위원회) 가입을 결정하는 날로 교회가 바라는 우리부부와 가정생활의 행복에 대해 일일이 예를 들어 설명해주셨다. 김태성, 김희숙 대표부부는 정진석 추기경에게 한국ME 30년 역사를 총체적으로 담은 ‘생명과 사랑의 빛이 되어’ 한국ME 30년사를 증정했다.

제21대 한국ME협의회 출범파견미사

제21대 매리지 앤카운터(ME) 한국협의회가 2009년 12월 5일 서울 수서본당에서 출범미사를 봉헌하고 힘찬 닻을 올렸다.

3년간 한국ME를 이끌어갈 제21대 한국ME 새대표팀은 김태성(루치아노, 서울대교구 잠실7동 본당)·김희숙(아네스) 부부, 최준웅(바르나바, 서울대교구 수서본당 주임)신부. 감사팀에는 권양명(미카엘)·주순영(엘리사벳) 부부, 정귀철(춘천교구, 성바오로 미원본당 주임) 신부가 부대표에는 이제빈(베드로) 윤봉희(스콜라스티카) 부부, 김종필(뿔리카르뽀, 성 베네딕도 수도회) 신부 임원 및 6개 분과(총무·기획·팀관리·팀양성·문화홍보분과·연구소) 상임위원들로 구성됐다.



한국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뚜스 (광주)

세나뚜스 4간부 선출



한국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 뚜스(광주)(단장 김남철, 담당 황양주 신부)는 639 차 월례회의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김남철 형제를 단장으로 선출했으며, 이어서 부단장 김광희 형제, 서기 최동균 형제, 회계 이민자 자

매를 선출함으로써 세나뚜스 4간부가 새로이 직책을 맡게 되었다. 김남철 신임 단장은 중책을 맡게 된 소감으로 “모든 단원들이 일치와 화합으로 순명하는 레지오, 기도하는 레지오, 활동하는 레지오로 거듭나 교회와 멀어진 냉담교우 회두는 물론 교구장님의 사목방침에 따라 선교활동을 통해 교회 사업에 앞장서는 레지오 마리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레지오 간부들의 리더십 향상에 주력할 것이며 간부와 단원들과의 화합을 통해 레지오 정신에 맞갖은 성모님

의 군대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라고 했다.

평의회 간부연수회

광주 중재자이신 마리아세나뚜스는 11월 8일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세나뚜스 산하 꼬미시움, 꾸리아 4간부,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회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회는 2010년도 활동지침서를 배부하면서 교구장 사목교서에 따른 실행지침을 바탕으로 2010년도 행사계획과 교육, 피정에 관한 내용들을 전달했다.



교황님의 유머

‘어느 보초병 이야기’



교황 요한 바오로 1세의 말씀을 모은 책 ‘루치아니 교황님이 들려주는 이야기’에서…

보초를 서게 된 한 병사가 어떤 차도 통과시키지 말라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어느 날 자동차 한 대가 도착했는데, 그 안에 타고 있던 장군이 운전병에게 정지 표지를 무시하고 앞으로 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보초를 서고 있던 병사가 차 쪽으로 다가가서 침착하게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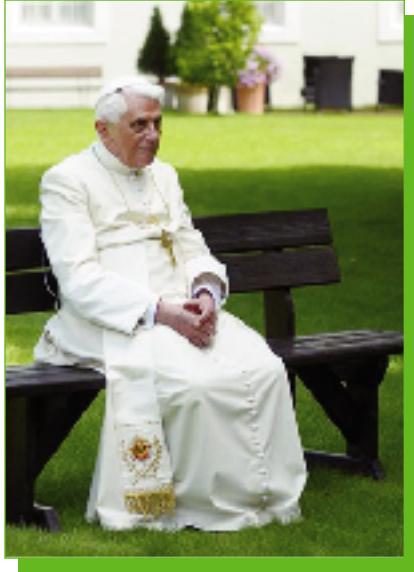
“장군님, 죄송하지만, 저는 보초서는 일이 처음인데요, 누구한테 먼저 총을 쏴야 합니까? 장군님입니까, 아니면, 운전병입니까?”

낮은 사람들에게는 거드름 피우지 않고, 높은 사람들 비위 맞추려고 자기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으며 자기가 맡은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교황 베네딕토 16세 • 말씀

교황 베네딕토 16세 2010년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제43차 세계평화의 날 삼종기도 훈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님께서 내려다보시는 가운데 당신 이름으로 새해를 시작하도록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2010년 첫 삼종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바치게 되어 기쁩니다. 성 베드로 광장을 찾아 오신 이렇게 많은 분들과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인사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방금 시작된 이 한 해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모두 그리스도님께 나아가는,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하여 우리의 이 세상을 개선할 수 있는 시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목표이자 평화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조건은 정의롭고 지혜롭게 지상의 자원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려면 피조물을 보호하십시오.” 저는 중대한 현대적 의미를 지닌 이 주제에 대해 「43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에서 다루었습니다. 이 담화가 발표되던 당시 각국 정부의 정상들이 코펜하겐에 모여 기후 정상 회의를 열었고, 거기서 다시 한번 세계 차원에서 일치된 대처 방안이 시급하다는 점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순간 환경 보호에 있어서 개인들과 가정들과 지역 정부들의 선택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모든 이로 하여금 새로운 생활 방식을택하도록 하는 사고 방식의 실질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담화 11항 참조) 실제로 우리 모두 피조물을 보호하고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분야에서도 교육이 기본입니다. 자연을 존중하도록, 그리고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와 국가 차원에서 광범위한 선택을 기본으로 하여 평화를 건설하기를”(같은 곳) 더욱 더 지향하도록 배우는 그러한 교육 말입니다.

우리 주위의 피조물을 돌보아야 한다면, 우리 형제요 자매인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인간 생명은 얼마나 존중해야 하겠습니까! 새해 첫 날 저는 어떠한 형태로든 무장을 한 집단의 모든 사람들의 양심에 호소합니다. 모든 이에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 드립니다. 멈추시오. 잘 생각하시오. 그리고 폭력의 길을 포기하시오!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을 수 있겠지만, 용기 있게 그렇게 하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도와 주실 것이고 어쩌면 오래 전에 잊어 버린 평화의 기쁨이 여러분 마음 속에 돌아 옴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호소를 지극히 거룩하신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의 전구에 맡겨 드립니다. 오늘, 전례는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지 여드레 뒤에 마리아님께서 배필인 요셉과 함께 모세의 율법에 따라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하고 천사가 일러 줬던 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셨다(루카 2, 21 참조)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시켜 줍니다.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을 지닌 이 이름은 하느님의 계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얼굴이며,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모든 민족들을 위한 축복이요 세상을 위한 평화입니다. 구세주를, 평화의 군주를 낳아 주신 거룩하신 마리아님, 고맙습니다!

제4회 우리성가 작곡 공모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제4회 우리성가 노랫말과 작곡을 공모합니다. 우리 정서에 잘 어울리는 성가를 창작하고 육성하여 신자들이 하느님과 더욱 일치하도록 하며, 전례의 토착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우리성가 창작공모에 역량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응모기간 : 2009년 12월 01일 ~ 2010년 3월 31일

◆ 당선작 발표 : 2010년 5월 중 발표

◆ 작품 : 우리성가 노랫말 공모에서 선정된 노랫말 중 자유로이 골라 전례에 쓸 수 있는 2성부 이상의 합창곡으로 신자들 또는 성가대를 위한 곡으로 작곡하되, 무반주 합창곡은 3성부 이상으로 작곡할 것.

(악보와 1절 이상 연주한 반주녹음(MR) 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응모자격 - 가톨릭 신자 또는 예비자

◆ 시상 - 최우수상 1편 / 상패와 상금 200만원

우수상 2편 / 상패와 상금 각 100만원

장려상 3편 / 상패와 상금 각 50만원

◆ 문의 : 한국평협 사무국 ☎ 02-777-2013 E-mail: clak@catholic.or.kr

◆ 홈페이지 : <http://clak.or.kr>

※ 선정된 노랫말을 바탕으로 창작곡 공모를 갖게 되며, 당선작은 내년 서울대교구 성가합창제 때 지정곡으로 연주됩니다.